초보운전

직업이나 사람에 따라 초보운전을 알리는 문구도 다양하다.
어느 시인의 초보운전 문구.
‘초보, 그 자체.’
어떤 충청도 아줌마의 초보운전 문구.
‘첨유, 박지마유.’
서울 시내 어떤 아줌마의 엽기적인 문구.
‘2박3일 직진중’